



(유)한국원종

세미나 개최



(유)한국원종(대표이사 인경섭)은 지난 8월 26일 업계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계장에서의 방란 관리와 육계의 도계 과정 및 도체 품질에 대한 고찰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방란관리는 마크 라이트 수의사가, 도체품질 고찰은 라파엘 몬레온이 초청되어 진행했다.

(주)한국일오삼농산

하계 프로모션 성황리에 실시

'처갓집양념치킨' 브랜드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주)한국일오삼농산에서는 약 40일간(7/18~8/30) 실행해 온 하계 프로모션을 성황

리에 마쳤다.

'처갓집 치킨 먹고, 서울타러 고고씽!'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신차량 '소울' 및 경품 당첨을 위주한 이번 행사는 삼복과 올림픽 특수를 누리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CJ제일제당

중국 베이다황그룹 합자법인 설립



CJ제일제당이 아시아 최대 곡물기업인 중국 베이다황그룹과 곡물 가공사업 합자법인을 하얼빈 현지에 설립해 해외 곡물자원 확보와 글로벌 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지난 8월 11일부터 공식 출범한 '베이다황CJ식품과기유한책임공사(베이다황CJ)'는 베이다황이 51%, CJ제일제당이 49%의 지분을 출자했으며, 총 경리, CFO 등 회사에 관련된 주요 경영은 CJ제일제당측이 담당한다. 양사는 이번 합자 법인 설립에 총 322억원을 투자했다.

'베이다황CJ'는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서 생산되

는 곡물을 원료로 미강 단백질, 현미유, 식이섬유 등을 연간 1만4천톤을 생산하고, 앞으로 콩, 옥수수 등 기타작물에 대한 제휴도 강화할 계획이다.

CJ측은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강 단백질 추출기술과 현미유 가공능력 등 CJ가 보유한 기술력에 베이다황의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더해지면 앞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다황그룹은 흑룡강성 농간총국이 소유한 곡물 재배 전문기업으로 자산규모가 64억달러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 곡물 생산기업이다. 흑룡강성 지역의 농지를 토대로 재배면적이 5만4,400km²(약 164억평)이고, 양곡 생산량이 1,132만톤으로 연간 매출액이 무려 40억달러에 달한다. 보유한 농장만 103개가 있으며 그룹 산하에 곡물 재배와 관련된 215개 기업과 18개 R&D단지를 갖고 있다.

김진수 CJ제일제당 사장은 "CJ제일제당이 오랜 기간의 R&D활동을 통해 보유한 식품 기술력과 베이다황이 지닌 곡물 자원의 결합은 국제 식품시장에 많은 시너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 '무결함 HACCP' 인증 획득

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대표이사 이보균)은 지난 7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무결함 HACCP' 적용 공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작년에 최초로 '무결함 HACCP' 인증을 획득한 정읍 공장에 이어 같은 회사에서 2개 공장이 인증을 받는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은 1998년 설립 당시부터 식품안전과 품질, 효율성에 입각하여 설계된 공장이다.

김해공장 공장장 박기호 상무는 "HACCP을 도입하면서 최고 경영진에서부터 현장 직원까지 '사료는 식품이다'라는 마인드로 철저하게 HACCP 시스템을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무결함 인증을 받은 김해, 정읍 공장 외에도 송탄, 천안, 군산 등 5개 공장이 HACCP 인증을 획득했으며, 전 공장이 '무결함 HACCP'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공장의 HACCP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장 HACCP 적용을 위해 컨설팅, 운송서비스, 자료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원료공급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의 HACCP 도입을 위해서 정기적인 방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이번 김해공장의 '무결함 HACCP' 인증을 계기로 하여 축산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